



한국간호과학회와 서울국제여성영화제는 2024년 8월 2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홍대 CGV에서 “영화 속 간호, 세상과 통하다” 라는 주제로 특별상영회를 개최하였다.

이숙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 변재란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이사장, 김증임 한국간호과학회 회장(순천향대학교 간호학과)은 첫 인사말에서 세 편의 영화를 통해 돌봄과 간호와 관련된 여성들의 삶을 돌아보고 돌봄의 시대적 과제를 함께 생각해 보는 장이 되기를 희망한다는 말을 전하였다.

여성 감독의 영화 3편 <거품의 무게(최이다 감독, 2023)>, <무브 포워드(김나연 감독, 2022)>, <실금(권다솜 감독, 2023)>이 상영되었으며, 행사에는 100여명의 관객이 함께 하며 영화에 깃든 여러 가지 돌봄의 의미를 논하고 질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한국간호과학회 대외협력이사 장선주(서울대학교 간호대학)의 사회로 최이다 감독과의 만남이 있었다. 최이다 감독은 작품의 구상단계에서 떠올렸던 어린 시절 어머니와의 추억, ‘거품의 무게’라는 제목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 배우 캐스팅 과정 등에 대해 열정 가득한 모습으로 관객과 대화를 나누었다.

이어서 한국간호과학회 총무이사 유미(경상국립대학교 간호대학), 오진아 교수(인제대학교 간호대학)의 영화와 관련한 토크쇼가 진행되었다.



(유미 이사) 안녕하세요? 한국간호과학회와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함께하는 특별상영회 토크콘서트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토크쇼를 진행해주실 교수님은 인제대학교 간호학과 오진아 교수님이십니다.

(오진아 교수) 안녕하세요? 오늘 귀한 자리에 함께 영화를 보고 영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유) 여성영화제라 여성감독님들이 만든 작품들이 상영되고 있는데요.

혹시 오 교수님은 여성 감독님들 중에 아는 분이 계신가요?

(오) 우리나라 감독으로는 영화 '키친', '결혼전야', '새해전야'를 연출한 홍지영 감독과 친분이 있습니다. 영화감독조합장이신 민규동 감독의 배우자이기도 하구요. 저는 여성 감독 특유의 섬세한 연출을 좋아하는 편입니다. 국외 감독으로는 영화 '피아노'를 감독한 제인 캠피언 감독을 좋아합니다.

(유) 피아노 제인 캠피언 감독은 작년에 이 영화제에서도 소개되었던 감독인 것 같은데요. 캠피언 감독은 여성감독으로는 최초로 칸영화제 황금종려상을 수상한 선구적인 여성 영화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오) 예, 1993년 바로 그 작품 <피아노>로 여성감독최초로 수상하셨죠. 아름답게 펼쳐진 바닷가와 피아노의 선율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유) 저도 기억합니다. 아마 이번 여성국제영화제 참여한 여성 감독님들도 이 감독님을 모델로 삼고 시작한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40년간 일관되게 가부장제 사회에서의 여성의 모습을 다루었고, 자신도 남성 중심적인 영화계에서 일과 '엄마'의 삶을 양립하려 애쓰면서 고유한 영화 세계를 확장해 왔다고 하네요. 오늘은 "영화 속 간호, 세상과 통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간호 혹은 돌봄과 관련된 영화들을 골라서 감상해보았습니다. 3가지 영화를 보셨는데요. 공교롭게도 세 작품 모두 여성감독의 영화였어요.

'최이다 감독의 거품의 무게, 김나연 감독의 무브포워드, 권다솜 감독의 실금(Leak)' 이었는데요. 먼저 <무브 포워드>라는 작품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가족 내 돌봄을 전담하다시피 해 온 엄마와 그와 다르게 사는 고모, 그리고 곧 유학길에 오르는 딸 등 여성들의 관계를 통해 가족 내 돌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오진아 교수님은 이 영화를 보시고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혹은 대사가 있으셨나요?

(오) 단편영화이다 보니까 대사 분량이 적어서 또렷이 기억하게 되는 대사들이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무브 포워드>는 엄마, 시연, 그리고 고모 현정의 세 여성이 주요 인물이죠. 각각의 대사가 상징적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모든 자녀를 대표해서 시아버지를 돌보는 엄마를 보며 시연이 엄마만 왜 맨날 혼자 할아버지를 돌보시는 거냐며 투정 아닌 투정을 하니깐 엄마는 "그냥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말을 합니다.

고모 현정은 우리나라 전형적인 큰누나, 큰언니처럼 어릴 땐 오히려 형제들의 뒷바라지에 자기 꿈을 접고 일찍 산업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었지만, 이내 대학진학을 하기로 하죠, 그런 결정을 내렸던 이야기를 조카인 시연에게 해주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지만 잘했다고 생각해", 그리고 시연은 할아버지에게 혼잣말처럼 과거 여행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했던 때를 이야기합니다. "계속 높이 올라가니까, 무서웠어. 그렇지만 그냥 내려가긴 싫더라"

비단 여성이 아니라도 어떤 중대한 결정을 할 때 자신이 처한 환경을 무시할 수는 없는데, 그때마다 여성이기 때문에 더욱 발목을 잡는 것들이 있죠. 시연은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으로 끝내 유학을 결정합니다. 시연이 떠나기 전날, 그래도 엄마는 베개를 가지고 와서 엄마 곁에 놓는 시연을 토닥토닥하며 응원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유) 네, 저도 시연이가 의식없는 할아버지 앞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려가기 싫더라"는 말이 인상깊었던데요, 저는 그것이 자신의 심정을 그대로 드러낸 말 같았어요. 엄마는 "왜 하필 지금 유학이나"라며 만류했었기에, 유학생활 내내 시연의 어깨에는 가족이라는 짐이 매달려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에 대한 의무와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욕망 사이에서 매번 주저하게 되는 K-장녀의 선택을 응원하게 되는 영화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엄마의 토닥임도 그런 응원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는 영화 속에 돌봄의 독박을 쓰는 여성들의 모습이 현실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영화에서 아버지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아요. 돌봄이 필요한 자신의 아버지의 돌봄조차 결국 며느리, 딸, 손녀딸의 몫인 거죠. 하지만 시연은 영화 제목처럼 무브 포워드 하기로 결심합니다. 진정한 나를 찾아 앞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하죠.



(오) 맞습니다. 시연이 무브 포워드 하는 그 마지막 장면, 기억하실까요? 캐리어를 끄는 시연의 도로에 '어린이보호구역'이 크게 적혀있는데, 감독들이 작은 소품 하나도 허투루 놓는 법이 없죠. 그런 감독의 섬세한 연출을 미장센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김나영 감독의 이 마지막 연출을 눈여겨 보았습니다. 유학을 나서는 길, 처음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처럼 천천히 조심스럽게 한걸음씩 나아가게 될 거라는, 그리고 모두가 응원하며 보호해줄 거라는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하지만 앞서 봤던 영화 <거품의 무게>에서는 요리 유학을 떠나려던 서준은 항공권을 취소하고 결국 엄마 옆에 남기로 결정을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컸지만, 그 또한 서준이 젊어져야 할 삶의 무게라고 생각한 것 같구요, 이에 대해서는 최이다 감독님이 직접 설명을 해주셔서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 네, <거품의 무게>에 나온 서준도 언젠가는 무브 포워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영화 <실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실금은 저희 간호사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의학용어인데요,, 실금, 빈뇨 등등 나이 들에 따라 피해가기 어려운 여성질환이자 증상이지요. 젊은 시절 생리대를 차다가, 나이 들면 실금 등으로 요실금 팬티나 패드를 차야 되는 것이 우리 여자들의 인생사 중 하나죠.

먼저 제목의 무거움에 비해 처음 시작할 때 음악이 참 경쾌하더라고요.

나미의 <빙글빙글>.. "어떻게 하나? 우리 만남은 빙글빙글 돌고 ♪~♪"

(오) <빙글빙글>의 노랫말을 기억하고 따라부를 수 있으면 옛날 사람일텐데요, 저도 경쾌하게 노래를 마음속으로 따라부르고 있었는데, 딱 "어떻게 하나?" 라는 가사가 나오는 지점에서 음악이 멈추죠. 화면도 멈추고 음향도 멈추구요. 그러면 관객들이 우물거리며 불렀던 "어떻게 하나"만 공중에 남게 되죠.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난감한 사건으로 영화가 전개될 거라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됩니다. 그것이 다른 것도 아니고 불가항력적인 생리현상이면 정말 대략 난감한 상황인 거 같아요. 이런 것도 다 감독의 섬세한 연출과 음향감독의 탁월한 음악 선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유) 네, 빙글빙글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직장도 옮길 수밖에 없는, 의지로는 제어가 불가능한 실금이라니, 몸의 변화가 얼마나 당혹스럽겠어요? 노화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실금이나 치매는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겪는 노화는 아니니까요, 그래도 주변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많이 겪고 있어서 여성영화의 소재로 다룰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 예, 특히 저는 지난 해에 친정어머니께서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으셔서 영화 속 김옥순 씨의 상황에 몰입해서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 시작할 때 "정수깁니다" 하고 정수기 관리를 왔다고 알려주었어요? 그때 저는 사람 이름 "정숙입니다" 라고 들리더군요. 정수기 관리사라기 보다는 마치 선생이, 지영이, 수연이처럼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정숙'씨 이야기이구나 나를 포함해서 우리들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실제 주인공 이름은 '수희'였지만요.

(유) 재미있는 발견이시네요. 바로 수희는 바로 우리 옆에, 혹은 내가 될 수 있는 평범한 인물이지요. 어떤 책에 나온 글이 기억나요. '인간의 몸은 유동적이고 예측불가능하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아프게 되는 것이 정상이다. 건강이야말로 예외적이다'라는 말이라는 글을 보고 현타(!)가 왔는데요. 아픈게 예외가 아니다. 실금처럼 결국 누구나에게 찾아오는 늙어감의 과정에 있는 자연스러운 현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게 하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의료인이다 보니까 영화 속 의료인의 모습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물론 의사만 나오지만요, 실금 때문에 찾아간 비뇨기와 의원에서 여자 의사가 하는 말투와 내용이 저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케겔 운동이라고,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요~~" 라고 말하죠.

(오) 영화나 드라마 속 의료인의 모습은 지나치게 이상적이거나 아니면 부정적일 때가 많은데, <실금>에서도 그렇고 앞선 <거품의 무게>에서도 그렇고, 의료인의 무심한 태도가 오히려 무척 사실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불현듯 영화 속의 사 말고도 간호사도 무심히 던지는 말로 환자를 상처입히는 경우가 많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이 병은 원래 그래요, 원래 아파요," 같은 말요, 진단을 먼저 내리고 그 진단과 질병에 증상을 끼워 맞추니 간호사의 입장에서 환자의 증상이 당연하게 느껴지죠. 하지만, 환자 자신에게는 이전에는 한번도 경험한 적 없는 두려운 순간이고 아픈이고 모든 증상이 위협적일 수 있거든요. 교과서에서만 이야기하는 "환자중심돌봄, 대상자중심돌봄"이 아니라, 현장에서 실천이 되는 돌봄, 인간중심돌봄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서울국제여성영화제
특별상영회**

**‘영화 속 간호
세상과 通하다’**

**Korean Society of
Nursing Science
X SIWFF
Special Screening**

**‘Nursing in Movies,
Connecting with the World’**

(유) 네, 시연의 엄마가 한 말처럼 '원래' 그렇다,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원래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오셨냐고 어디가 불편하시냐고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돌봄제공자들은 도움을 요청하러 온 환자나 대상자가 하는 말에 대해 신체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심리적인 부분도 함께 돌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원래 이렇게 살아왔다는 생각에서 여성들이 이제는 벗어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진아 교수님, 오늘 감상한 영화들이 우리에게 말하는 공통된 메시지가 무엇이 있다고 보시나요?

(오) 저는 이 영화 세 편을 관통하는 메시지는 '자기돌봄'인 것 같습니다. <무브 포워드>에서는 시아버지를 간병하는 엄마도 자기의 신체적 정서적 건강을 돌아봐야 하고, <거품의 무게>에서도 서준은 엄마도 돌봐드려야 하지만, 엄마랑 똑같이 체중이 감소되어 갔던 자신의 건강상태도 돌아봐야 하구요, <실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숙의 자기돌봄이 먼저 되어야 가족도 이웃도 돌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타면 이륙하자마자 스튜어디스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약 비행 중 산소마스크가 떨어지면 먼저 자신의 산소마스크부터 착용하고 나서 주변 사람을 도와주세요" 어린 자녀를 포함해서 노약자를 동반했을 때 응급상황이 벌어지면 허겁지겁 자녀에게 먼저 마스크를 씌우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자 보호자인 내가 먼저 먼저 착용하고 노약자에게 산소마스크를 착용시키도록 안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비행 중 산소마스크가 떨어질 정도로 응급한 상황이 흔치는 않겠지만, 보호자 입장에서 가족을 먼저 챙겨야 할 것 같은 심정적인 조바심을 이겨내고 보다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겁니다. 이는 비단 여성에게만 주어지는 메시지는 아닙니다.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의 다름 아니죠. 내가 건강해야 가족이 건강하고 우리가 모두 건강한 겁니다.

(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세 편의 영화들을 통해 자기돌봄이 중요하지만, '가족의 돌봄'에서 돌봄노동자가 여전히 여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늙어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 것인가?'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가족'이라고 말하고 실제 가족 내 돌봄의 80%는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지요.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돌봄 노동자들도 대부분 여성이구요. 이것은 어머니, 며느리, 딸의 사랑, 노동, 헌신, 고통, 번민, 고되, 매일의 분투가 메워왔던 '젠더 부정의 (injustice)'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능 프로그램 중 '수퍼맨이 돌아왔다'를 보면, 여성의 돌봄은 '다큐'인데 비해 남성의 돌봄은 '예능'이 되고, 병실에 아내가 간병을 하면 당연한 것이지만, 남편이 보호자가 되면 모두의 칭찬을 받는 미담의 주인공이 되는 현실입니다.

말기환자와 가족들을 대상으로 "좋은 죽음에 대해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들은 통증에서 해방, 영국인은 익숙한 환경, 일본인은 신체적, 정신적 편안함을 1위로 뽑은 반면, 한국인은 '가족에게 부담이 안되어야' 좋은 죽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합니다. 돌봄의 부담을 가족에게 특히 딸이나 며느리인 여성에게 부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쓸모없음'이라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 마치 돌봄을 받는 것이 미안함의 이유가 되고 당연하지 못하게 되는 것도 문제이지요.

(오) 무척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간을 '쓸모 있고 없음'으로 가름할 수는 없습니다. 하이데거나 사르트르를 비롯한 많은 실존주의자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만이 유일하게 '본질'이 아니라 '실존'으로 존재하는 자니까요. 어머니로, 딸로, 며느리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잖아요. 사물은 의자는 앉기 위한 도구로, 필기구는 쓰는 도구로 그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본질이 분명하지만, 그래서 그 쓸모가 다하고 본질적인 이유가 사라지면 의미가 없어지지만, 인간은 존재 자체만으로 삶의 이유가 되는 실존적인 존재잖아요. 그래서 존재 자체의 존엄함이 인정받는 것, 그것이 여성이나 남성으로 규명하거나 사회에서 규정하지 않고 가장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조건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 맞습니다. 간호는 인간의 존엄성, 인간존중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업(業)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취약함을 가지고 있기에 아프더라도 돌봄을 요구하더라도 미안함이 아닌, 인간의 권리임을 인정할 수 있는 태도, 사회적 공유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좋은 돌봄의 기준이 가족돌봄이라는 말로 설명되는 사회적 가치관에 갇혀, 마치 늙으면, 아프면 가족이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에 머물 것이 아니라,, 공격, 사회적 돌봄의 필요를 외치고 여성 스스로 벗어나야 한다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와 같은 간호사들이 특히 가까이에서 공격 돌봄을 제공하는 역할을 해야 하고, 사회가 그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는 점이 이 영화들을 통해 정리된 저의 생각입니다.~

(오) 맞습니다. 자기 자신과 가족과 그리고 사회에서의 진정한 돌봄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제도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오늘 서울여성국제영화제와 한국간호과학회가 함께한 "영화 속 간호, 세상과 통하다"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오진아 교수님, 관객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관객 소감 한마디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회장 강경숙

'여성 영화제'라고 하여 기존의 여성감독이 제작했던 영화(성평등, 여성인권...)라는 편협된 생각으로 임했습니다. 이번 영화제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경험할 수 있었고, 간호와 보건의료를 함께 접목하여 여성감독만의 섬세함으로 제작했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한양대학교 독어독문학과 탁선미 교수

3편의 돌봄 영화는 초고령화, 초저출산률, 핵개인화가 지배하는 현재 우리사회에서 돌봄문제가 누구에게나, 또 생애주기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보편적 문제가 되었음을 말해준다. 가족관계를 넘어서는 유연한 사회적 돌봄관계를 적극 지원할 필요를 절감하며, 특히 물리적 심리적으로 전혀 준비되지 않은 청년세대의 돌봄 부담은 치명적일 수 있다는 점을 진지하게 고민하게 만든다. 이런 의미에서 서울국제여성영화제와 한국간호과학회의 연대에 지지와 존경을 보내고 싶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 한경희

너무 멋진 영화제였어요.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좋은 자리 마련하여 초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방학이 끝나기 전 아주인상적인 자리였습니다. 피하고 싶지만 오롯이 감당해야 하는 무더운 여름날처럼... 누구든 부정하고 싶지만 피할 수 없는 '돌봄'의 현주소를 현실적이고도 애정어린 시각으로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삶의 가치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도록 귀한 시간을 마련해주신 한국간호과학회에 감사드립니다.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사회공헌위원회 이은령

오늘 젊은 여성감독님의 날카로운 시선으로 만드신 영화 잘 보았습니다. 보면서 제 이야기를 하는 대목도 있고... 안타까운 영상이지만 우리의 현실이네요. 계속 발전해서 영화로 알리고 사회의 제도도 개선되면 좋겠습니다.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양일모 교수

세 편의 영화를 보면서 누가 돌봄을 맡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품의 무게>에서는 유학을 준비하는 아들이 아픈 어머니를 미숙한 방식으로 돌보고 있고, <무브 포워드>에서는 며느리가 전통적 책임감으로 외상환자 시아버지의 케어를 담당합니다. <실금>에서는 정수기 서비스로 친해진 수희가 가족보다 더 친하게 치매 할머니를 돕고 있습니다.

청년 아들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고뇌의 효자 돌봄을 하고 있고, 며느리는 인습의 굴레를 받아들이며 효부 돌봄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아닌 수희는 따뜻한 마음으로 일종의 시민 돌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효자와 효부의 돌봄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돌봄 또한 쉽지 않습니다. 수희도 끝까지 돌봄을 책임질 수 없었습니다. 그녀 자신도 돌봄이 필요했습니다. 돌봄은 가족의 차원이 아니라 시민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돌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도록 해 준 간호과학회와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특별상영회에 감사드립니다.

